

효빈항역(도시철도)

최근 수정 시각: 2025-09-24 14:33:02

분류: 남구(효빈)의 철도역 | 1932년 개업한 철도역 | 효빈 도시철도 1호선 | 효빈 도시철도 7호선 |
빈호선 광역전철 |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

- 개요
- 역 정보
- 역 주변 정보
 - 출구 정보
- 일평균 이용객
- 승강장
- 연계 교통
- 기타

효빈항역



창선·곽암해수욕장
방면

남구청

← 0.95 km

1호선
(116)

장선 방면

효빈역

1.4 km →

어간중양방면

산흥

← 0.7 km

7호선
(706)

중보로·효빈대입구
방면

효빈항동부

0.78 km →

효빈항 방면

효빈

← 1.7 km

빈호광역
(B10)

고남 방면

하성천

1.8 km →

빈호선 효빈항역으로 갈아타기

역명 표기

1호선

7호선

빈호선
광역전철

효빈항

Hyobin port

孝彬港/孝彬港/ヒョビン港

주소

효빈광역시 남구 항동 3가 1213

관리역

효빈관리역

운영 기관

1호선

7호선

효빈교통공사

1. 개요

효빈 도시철도 1호선 116번 및 7호선 706번, 빈효선 B01번 효빈광역시 남구 향동3가 1213 소재.

2. 역 정보

3. 역 주변 정보

빈효선 광역전철	한국철도공사
개업일	
1 호선	1984 년 12 월 2 일
7 호선	1932 년 3 월 8 일
빈효선 광역전철	2017 년 5 월 2 일
역사 구조	
지상 1 층 노면 (7 호선) 지하 2 층 (1 호선) 지상 1 층(빈효광역선)	
승강장 구조	
2 면 3 선 상대식 승강장 (1 호선) 복선 섬식 승강장 (2 호선) 2 면 4 선 승강장 (빈효광역선)	

3.1. 출구 정보

효빈항역 출구 정보	
1	효빈항역 행복주택
2	효빈항역삼거리
3	빈효광역, 일반열차 효빈항역
4	7 호선 효빈항역 환승
5	7 호선 효빈항역 환승
6	7 호선 효빈항동부역
7	1 호선 효빈항역,일반열차 효빈항역
8	한국해양물류발전협회, 해양환경공단 효빈지사

4. 일평균 이용객

연도	①	⑦	빈효	총합	비고
2020 년	13,298 명	3,407 명	12,338 명	29,043 명	
2021 년	13,446 명	3,586 명	12,476 명	29,508 명	
2022 년	15,636 명	3,775 명	14,507 명	33,918 명	
2023 년	15,911 명	3,974 명	14,762 명	34,647 명	
2024 년	16,191 명	4,183 명	15,021 명	35,395 명	

5. 승강장

↑ 남구청			
하			상
↓ 효빈역			
상	효빈 도시철도 1호선		창선·곽암해수욕장 방면
하			장선 방면

↑ 효빈성앞			
하			상
↓ 중앙고등학교			
상	효빈 도시철도 7호선		중보로·어간중앙 방면
하			효빈대입구 방면

6. 연계 교통

구분	정류소명	노선 번호
순방향	효빈항역	59, 69, 90, 492, 591, 592, 691, 692
역방향	효빈항역(건너편)	95, 96, 90-1, 942, 951, 952, 691, 692

7. 기타

- 효빈시 대중교통의 최종보스: 지하 깊숙한 곳을 달리는 1호선, 지상의 도로를 누비는 7호선(트램), 그리고 광역 수송을 담당하는 빈효선이 한 큐에 만나는 거대 환승역이다.
- 이 때문에 역 구조가 3차원 미로 수준으로 복잡하다. 초행길인 사람이 1호선에서 내려 7호선으로 갈아타려다가 빈효선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가서 강제로 타지 여행을 떠났다는 괴담이 전설처럼 내려온다.(...) ~~여기서 길 잃으면 바다로 간다.~~
- 환승 통로의 길이가 서울의 모 역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길다. 특히 7호선(지상) ↔ 1호선(지하 3층) 환승은 거의 등산 코스 수준이라, 에스컬레이터 고장 시 강제 하체 운동이 확정된다.
- 서브컬처 성지 (1): Roselia의 영지
- 역명에 들어가는 '**항(港 - 항구)**'이 일본어로 '**미나토(Minato)**'라고 읽힌다는 점 하나 때문에, '**《BanG Dream!》**'의 밴드 Roselia의 보컬 '**미나토 유키나(Minato Yukina)**'의 성지로 추앙받는다.
- 팬들은 바닷바람이 부는 역 광장에 서서 Roselia의 노래를 들으며 '**전부 걸겠어(すべてを賭ける)...**'라고 중얼거리는 의식을 치른다. ~~지나가던 어르신: "뭐에다 건다는겨? 도박인가?"~~
- 인근의 '**탄미역(탐미주의 컨셉)**'과 함께 Roselia 팬들의 필수 순례 코스로 묶인다. 실제로 역사 내 카페에서는 보라색(로젤리아 이미지 컬러) 음료가 유독 잘 팔린다고 한다.
- 서브컬처 성지 (2): 제독과 지휘관들의 항구
- '항구'라는 특성상 '**《벽람항로(아주르 레인)》**'나 《함대 컬렉션》 같은 함선 모에화 게임 유저들에게도 의미 깊은 장소다.
- 대형 선박이 정박하는 효빈항이 바로 앞에 있어, 실제 배를 배경으로 자신의 '최애 함선 소녀' 굿즈를 놓고 사진을 찍는 오타쿠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.

- 빈호선 개통 기념일이나 해군 행사가 있는 날이면, 제복 코스프레를 한 팬들이 역을 점령하여 마치 코믹월드를 방불케 한다.
- 낭만과 현실의 괴리
- 1930년대부터 운행한 고풍스러운 7호선 트램이 항구의 석양을 배경으로 지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다. 철도 동호인들의 단골 출사지이기도 하다.
- 하지만 출퇴근 시간(RH)에는 1호선과 빈호선에서 쏟아져 나온 환승객들이 트램을 타기 위해 좀비 떼처럼 질주하는 '**'효빈행 부산행'**을 찍는다.(...) 낭만은 개뿔, 살기 위한 몸부림만 있을 뿐이다.
- 빈호선의 기점
- 효빈시와 타 지역을 잇는 빈호선 광역전철의 시발역(기점)이다. 덕분에 자리에 앉아가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.
- 주말 밤 막차 시간이 되면, 타지에서 효빈시로 성지순례를 왔다가 돌아가는 팬들이 양손 가득 굿즈 보따리를 들고 빈호선 승강장에서 꾸벅꾸벅 조는 진풍경이 연출된다.